

나주시, 도시농업전문가 양성 3기 모집

오는 26일까지 접수...3월17일~7월7일 교육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자격증 취득 자격 부여

나주시는 '2021년 도시농업전문가 양성과정' 3기 교육생을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 3년 차를 맞은 이번 교육은 도시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지역 여건에 적합한 도시농업전문가를 양성한다. 교육 수료생들은 학교 텃밭 강사 및 관리 인력, 도시농업 전문 강사 등으로 활동하며 도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으로 각광받는 도시농업 보급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3기 교육은 3월 17일부터 7월 7일까지 총 15회(90시간) 과정으로 진행된다. 출석률 80%, 평가 시험 80점 이상의 교육생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계획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도시농업의 이해 및 관련법', '텃밭조성 설계·관리', '텃

밭작물 재배 방법', '도시농업프로그램 기획', '안전먹거리·로컬푸드 이해', '현장실습교육' 등 기초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다.

신청은 도시농업 관리사 취득을 희망하는 만19세 이상 시민 누구나 가능하며 농업관련 자격증 소지자, 농업 활동 경력 등을 우대조건으로 교육생 2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나주시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 나주시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도시농업팀에 방문 또는 이메일(kim2101@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한편 수료생들은 국가공인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취득의 기회도 주어진다.

도시농업관리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부여하는 자격으로 국가 지정 전문인력양성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시



시농업 전문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할 시 자격이 부여된다.

또 농화학·시설원에·원에·유기농업·종자·화훼장식·식물보호·조경 분야 기능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도 해당된다.

시는 지난 2019년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25명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성과를 이뤘다.

김홍배 나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도시농업은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에 교육, 건강, 여가, 공동체를 결합한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도시농업을 선도하는 현장형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희기자

곡성군 "돈부터 먼저 낼게요"

소상공인 위해 착한 선결제 캠페인 적극 나서

곡성군이 착한 선결제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착한 선결제 캠페인은 앞으로 사용할 업무추진비 등을 일정 금액 미리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동네 마트, 음식점 등 코로나19로 생사의 기로에 서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당장의 위기를 극복할 버팀목이 되어주자는 취지다.

곡성군은 한 달 간 6천 5백만원 선결제를 목표로 하고 있다. 18개 부서와 11개 읍면 모두 참여해 소관 업무추진비 10~20%를 사용할겠다는 것이다. 이를 마중물로 타기관과 단체 등 민간부문에서도 선결제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곡성군은 지역경제 살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앞선 지난 5월에는 지역경제 회복 실행과



제 추진 회의를 통해 화훼농가 돕기 꽃 소비 운동 등 46개 사업을 발굴한 바 있다. 앞으로 실행과제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민관이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착한 선결제 캠페인이 소상공인들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란다. 타 기관과 단체들도 자발적으로 동참해 어려움을 함께 이겨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구례군,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영농기 이전 공급

지력유지·보전,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기대

구례군은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통해 토양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를 대량으로 공급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올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림사업통합시스템(AGRIX)에서 물

량을 산출해 2,492농가에 친환경 유기질 비료 370,483포(7,408톤)를 공급한다.

3년 1주기로 공급되는 토양개량제는 올해 토지면, 마산면 820농가에 규산 39,506포, 석회 7,900포, 패하석 7,064포를 지원해 총 54,470포(1,089톤), 2억 3

백만원을 전액부상 지원한다.

지원대상 농가는 비료 구입 시 1포(20kg)당 유기질비료(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3종에 대해 1,600원을,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 일반퇴비) 2종은 등급에 따라 1,300원 ~ 1,600원을 정액으로 지원받는다.

유기질비료 지원 대상농가는 오는

9월 말까지 배정물량을 인수해야 하며, 사업포기 의사 없이 인수하지 않을 시에는 포기 물량으로 간주하고 농협과 읍·면을 통해 필요로 하는 농가에 재배정할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친환경 농자재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함으로써 친환경 농업 실천을 통한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화순군, 아동·여성·고령 '3대 친화도시 인증'

세계보건기구, 화순군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 승인

화순군이 민선 7기 역점 과제로 추진한 '아동·여성·고령 3대 친화도시 인증' 지자체가 됐다.

화순군은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지난 9일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 GNAFCC) 가입 승인(인증)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화순군은 지난해 12월 잇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여성가족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다.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는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인 고령화와 도시화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세계적 프로젝트다.

나이 먹는 것에 불편하지 않으며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살고 싶고, 평생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주요 회원 도시와 고령사회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관한 정보 공유·교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화순군은 만 65세 노인 인구가 26.9%에 이르는 초고령사회로 2019년 25.1%, 2020년 26%, 2021년 26.9%로 매년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화순군은 민선

7기 공약 사업으로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회원 가입(인증)을 추진해 왔다.

그동안 화순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고령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와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힘써왔다.

화순군은 "노후가 행복한 세대연대 1번지 화순"을 비전으로 ▲안전과 고령친화 시설 ▲교통편의 환경 ▲주거편의 환경 ▲지역사회 활동 참여 ▲사회적 존중·포용 ▲고령 자원 활용과 일자리 지원 ▲의사소통과 정보제공 ▲지역복지와 보건 등 세계보건기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 8대 영역의 실행 방안을 마련, 추진할 계획이다.

구중근 화순군수는 "3대 친화도시 인증은 완성이 아니라 보편복지의 시작"이라며 "친화도시 인증을 계기로 사회·경제·문화적 제도와 기반을 더욱 확충해 영유아에서 어르신까지 누구나 살고 싶은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담양시장 재건축 사업 본격화... '담양 임시시장' 개장



인근 주차장 부지에 조성

담양군은 문화와 마켓이 공존하는 새로운 상업시설인 '루프탑가든형 담양시장 재건축 사업' 진행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담양 임시시장을 운영한다.

군은 기존 상인의 영업권 보장과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인근 주차장 부지 약 1,337㎡에 임시가설물 26동을 설치하고, 전기·수도·전막 등 편의시설을 구축했다.

임시시장 내에는 기존 시장건물에서 영업하던 상인들이 입주해 수산물, 의류, 신발, 잡화, 식품류를 취급하는 점포로 구성된다.

군 관계자는 "영업장소 변경으로 인한 상인들의 소득감소가 우려되므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임시시장을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루프탑가든형 담양시장 재건축 사업은 총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연면적 6,213㎡(지상1층, 지하3층) 규모로 조성되며,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담양=박중영기자

“ 땅에서 나는 음식 중에 토란보다 맛있는 것은 없다 ”

허균 <도문대작>

